



오빠·누나, 내년에도 함께 캠프해요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 학생회
연꽃·극락마을 어린이 초청 경주 나들이
이들은 이날 즐거운 표정이다.



“무서워 하지만, 누나가 시원하게 해줄
게” 그래도 성장이 늦은 형준이는 물이
우습기만 하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 학생회 연꽃·극락마을 어린이 초청 경주 나들이

“이야, 공격, 덩벼라!!” “으앙! 승
윤이가 밟았어요.”

8월 17일 경주월드 수영장에는
30명의 어린이들이 30명의 대학생
형, 누나를 만나 신이 났다. 예전 연
꽃마을(원장 정안) 어린이 15명과 극락마을(원장 서경석) 정신
지체 장애인 15명이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
학생회 형·누나들의 초대를 받고 2박 3일간의 ‘우리 경주가
자’ 캠프에 온 것이다.

연꽃마을 어린이들에게 이런 기회가 매우 드물다. 더군다나
극락마을 정신지체장애 아이들은 더욱 쉽지 않다. 그렇기에 이
번에 불교문화대 형·누나들과의 나들이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16일부터 시작된 캠프. 첫날은 불국사를 참배한 데 이어, 17
일 드디어 고대하던 경주월드 수영장에 도착했다.

승윤이는 머리에 쓰고 있는 수영모자와 수영복을 가리키며

자랑하고 나섰고, 덩치만 컸지 여전히 어린이의 지능을 가
진 ‘천진불’ 성규이는 카메라를 들이대자 자연스러운 웃음과
슬리의 ‘V’ 자를 표시하며 멋진 포즈를 취했다. 연꽃마을 막둥
이 상훈(4)이는 누나들이 많아 마냥 즐거운 한다. 물에 푹푹 뛰
어들어 잠수도 해 보고 이리저리 물속에서 몸을 굴리던 아이
들이 형과 누나들을 못살까? 군다. 한꺼번에 달려들어 물을
뿌리거나 밀어뜨려 물에 빠뜨리고는 해맑은 웃음을 내보인다.

이번 행사기간 동생들과 함께하기 위해 나선 동국대 불교문
화대 학생 30명은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든 긴장을 늦추지 못
한다. 극락마을 지체장애자 아이들이 15명이나 되다보니 아이
들의 행동 하나하나 그날 지나쳐서는 안되는 것.

유달리 성장이 늦고 몸이 약한 형준(18)이는 표현력도 부족
해 말을 하지 못하기에 행동을 보고 마음을 읽어야 하며, 언제
나 부산한 해인(16)이는 통제가 없어 유심히 살펴야 한다.

“형! 쉬~”

“후원 줄어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인터뷰 ▶ 학생회장 황의모 씨



“연꽃마을과의 인연은
1993년부터 이어진 것으로,
보통 가정의 어린이보다 기
회가 적은 동생들에게 형
누나로써 캠프 기회를 만들
어주고 싶어 함께 나왔을
뿐 특별한 행사라고 생각하
지 않습니다.”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연
꽃마을 어린이를 초청하여 ‘우리 경주 가자’ 행사를
펼친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 학생회장 황
의모(불교학과 3년·사진)군은 이렇게 취지를 밝혔다.

황 군은 이번 행사를 기획하면서 어느 때보다 재정
적인 문제가 제일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경제불황이
다보니 평소 후원을 해주던 단체들이 후원을 중단
한 것이다. 학생들 사이에서 올해는 행사를 포기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황 군은 “1년을 아니 평생
을 간직하고 갈 아이들의 추억과 희망을 생각하면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어려움을 핑계로 조금이나마 사회로 회향했던 자
비실천이 가장 먼저 사라지는 사실이 안타깝다”는 황
군은 “아무리 어려워도 함께 나섰던 사랑까지 줄여서
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이들 한마디에 형은 얼른 화장실로 데려가고, 넘어진 아
이 일으켜 세우고, 물 먹고 주는 아이 달래준다. 수영장이 두려
워 한 칸에 우두커니 있는 극락마을 친구들에게 수영장 물과
자연스럽게 친해지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중요했다.

불교문화대 학생회 부회장 장지향(불교아동학과 4년) 양은
“이번 행사를 통해 아이들의 친진함과 순수함에 오히려 많이
배웠다”고 말했다.

경주=배지선 기자

▶ 도와주세요

급성백혈병 수술비가 없어요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한 고등
학생 불자가 수술비가 없어 애타
태우고 있다.
학교에서 상위원으로 공부도 잘
했고, 리더십도 강해 부실장 등을
도맡았던 박준 군(17·사진)을 4
월 말 박 군에게 갑작스레 급성림프
구성 백혈병이 발병했다.

골수이식만이 유일한 생존 수단인 박 군. 이마저도 조지
이 일치하는 사람이 없어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또 아버지 박병용(47) 씨가 5급 장애인인데다 교통사고로
최근 6주 진단을 받았고, 어머니 김정숙(44) 씨도 2년 전부
터 자궁근종에 척추분리 질환을 앓고 있어 박 군은 제대로
치료 한번 받지 못하고 있다. (02)734-8050(생명나눔) 제
좌:농협 053-01-243778(예금주 생명나눔) 김철우 기자

“우린 ‘장애’ 없는 친구랍니다” 곰두리네 집·녹양초교 통합교육 실시

장애우와 비장애우 사이에 존재한 벽을 허물고 함께 어울리는
프로그램이 열려 화제를 모았다.

진각복지재단 산하 의정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곰두리네집(센
터장 김순연)은 ‘소중한 내 친구와 함께 하는 상호이해 프로그램’
의 일환으로 8월 17일 의정부 녹양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통합교
육을 실시했다. 녹양초교 병설 유치원에서 열린 이 프로그램은 7월
27일부터 총 5회에 걸쳐 열린 장애우·비장애우 어울림 마당의 한
과정이다.

‘같이 배우기’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통합교육에서는 기타소리
에 맞춰 노래를 부르거나 함께 게임을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서로
의 벽을 허물었다. 특히 장애우·비장애우를 가리지 않는 손을 맞
잡고 마음을 나누는 아이들의 친진함이 묻어났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통합교육은 장애우와 비장애우가 함
께 어울릴 생활함으로써 장애우들에게는 자신감 향상과 사회통합
의 계기를, 비장애우들에게는 장애우들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공



의정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곰두리네집의 장애우 어린이들과 녹양초등
학교 비장애우 어린이들이 ‘같이 배우기’를 주제로 공동체 프로그램을
익히고 있다.

존의 이치를 깨우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를 담당한 이해영 사회복지사는 “처음에는 서먹서먹해
하고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던 학생들도 차츰 서로 도우며 이해하
는 법을 배운 것 같다”며 “프로그램의 효과와 반응이 의외로 좋아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
다.

박봉영 기자

▶ 현대불교와 좋은벗풍경소리가 함께 하는 ‘나눔의 손잡기’



“어린이·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벗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장차 찬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
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
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장차 찬불동요를 선별해 주세요.
불자님들 한 분 한 분의 정성은 미래의 부처님 되실 어린 불자
들에게 ‘불성’을 기우어 주는 정린 불사가 될 것입니다.

- ▶ 어떻게 참여하나
 - ◇종단·사찰·기업·단체·개인 모두 동참 가능합니다.
 - ◇본사·연고사찰 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 ◇1구좌 1만원입니다.
 - ◇보급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 ▶ 어떻게 진행되나
 - ◇매주 캠페인 내용이 소개됩니다.
 - ◇매달 한번씩 동참자명단을 게재합니다.
 - ◇아름다운 사연을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

* 온라인구좌 / 농협 053-12-132878 예금주: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 문의 / 좋은벗 풍경소리 (02) 723-9836

▶ 이렇게 참여하세요

- ♥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기수)
법률 및 세무상담(불자 변호사 세무사) 봉
사에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
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
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중개
소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
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 ♥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한통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
1080)를 통해 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
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 등

-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에
게 전달해 드립니다.
- ♥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학
생,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 주
세요.
- ♥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식아동들의 후원
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
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
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
주십시오.
- ♥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
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
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
해 드립니다.
- ♥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
결연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기간 자매결연
을 추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
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
자들을 모집합니다.
-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지원
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
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
해주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
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
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 자비의 헌혈증 및 장기기증
개인인 소장하고 있는 헌혈증을 보내
주세요. 장기기증에도 참여해 당부드립
니다.
- ♥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아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
양이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
십시오.